

Iago의 성격

—그의 복수와 그 동기를 중심으로—

金 光 浩

1

*Othello*는 흔히 Shakespeare의 극중에서 가장 단순한 극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피상적으로 보면 확실히 이 극에는 사대(四大)비극의 다른 세 극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광대심원한 분위기나 초자연적인 요소가 결핍되어 있다. 다른 비극들이 우주나 국가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전개되면서, 폭풍, 마녀, 유령의 개입을 통하여 신비적인 감정을 야기시키는 운명비극의 양상을 떠고 있는데 반하여, 이 극은 Shakespeare의 비극 중에서 유일한 가정비극으로서 그 무대가 좁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개인의 심리를 통한 일상적인 주제가 취급되고 있다. 등장인물들의 성격이나 극적상황도 생생한 필치로 묘사되어 있어서 Shakespeare의 극 중에서도 가장 자연주의적인 작품으로 손꼽혀 왔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극의 악역인 Iago 만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곤란한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다. 그는 이 극의 비평에 있어서 끊임없이 주목의 주초점이 되어 왔고 특히 그의 불가사의한 성격에 대하여는 구구하고, 그것도 흔히 정반대되는 해석이 오늘날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Having pursued the meaning of Iago by ingenious and labyrinthine ways, critics and scholars are left, like his greatest victim, "perplex'd in the extreme."... Iago has been rationalized to the last inch of his human similitude. But the hard and literal emigma of Othello's fatal ancient remains intrac-table. There is still no successful mediation between his terrible vividness, as we *feel* it on the one hand, and the blank he presents to our scrutiny on the other. To his bad eminence above all other figures of evil in the Eliza-

bethan drama he is elevated not only by the shock of his turpitude, the pathos of his victims, and the poetry of his role, but also, and in no small measure, by his mystery.¹⁾

어떤 비평가는 Iago는 극의 방역(傍役)이며 「극적기구로 필요한 존재」(“a necessary piece of dramatic mechanism”)에 불과하므로 그의 성격에 대한 많은 주목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²⁾ 그러나 Iago는 방역이면서도 주인공인 Othello에 못지않게 극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중요한 인물이다. 비극적 파국에 이르기까지의 극의 흘루의 대부분이 그의 계획과 조종에 의하여 진행될 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해석 여하에 따라 주인공의 성격도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Iago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 이 비극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Any consideration of the Tragedy of Othello must be primarily occupied, not with its official hero but with its villain. I cannot think of any other play in which only one character performs personal actions—all the *deeds* are Iago's—and all the others without exception only exhibit behaviour.³⁾

Iago의 성격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간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그가 극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그런 흉악한 악행을 행하게 되는 동기이며 그의 성격의 모호성은 바로 불가사의한 그의 동기에서 주로 유래한다. 이 극의 소재가 된 Giraldi Cincio의 *Hecatommithi*(1565)에서 Iago의 원형인 기수(Ensign)의 유일한 동기는 그가 Desdemona (Desdemona의 원형)을 짝사랑하였다가 거절당한데 대한 원한이었다. 극에서는 Iago가 이 동기에 대하여는 한번 우연히 언급할 뿐이고 그 대신 소재에 없던 새 창조인물인 Roderigo에게 그 성취되지 못한 사랑이 옮겨지고 Iago는 그 사랑을 조통합으로써 그의 냉소적인 성격을 드러내 보여주게 되어 있다. 그리고 소재에서는 Iago의 증오의 주대상이 Desdemona이었던 것이 극에서는 Othello로 바뀌어지고 있다. Iago는 Roderigo와의 대화와 자신의 독백 속에서 여러번 Othello에 대한 증오의 동기에 대하여 언급

-
- 1) Bernard Spivack, "Iago Revisited"(from *Shakespeare and the Allegory of Evil*), in *Shakespeare, the Tragedies: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by Alfred Harbag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4), p. 85.
 - 2) See F.R. Leavis, "Diabolic Intellect and the Noble Hero," in *The Common Pursuit*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2), pp. 137-138.
 - 3) W.H. Auden, "The Joker in the Pack", in *Shakespeare, Othello: A Case-book*, ed. by John Wain (London: Macmillan, 1971), p. 199.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때마다 추가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며 또 그것들이 전후 조금씩 모순되기도 한다. 게다가 그가 열거하고 있는 여러 동기들은 얼핏 보면 그의 흉악한 복수와 너무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행동이 오직 Othello를 괴롭히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이리하여 Coleridge 이래로 유명한 Shakespeare 비평가들 중 대부분⁴⁾은 Iago가 스스로 말하는 동기를 인정치 않고 그의 동기열거는 자기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들은 대개 Iago를 악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타인의 고통을 즐겁게 생각하기 때문에 악행을 일삼는, 초인간적인 악의 상징, 악마 내지는 그에 가까운 악의 천재로 보아 왔다. 이런 견해는 물론 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Iago를 초자연적인 존재로만 보게되면 자연주의적인 이 작품의 극중인물로서는 지나치게 상징적인 존재가 될 수 밖에 없고, 또 극작가가 유독 Iago만을 초인간적인 인물로 등장시키려 하였다고 믿기도 어렵다.⁵⁾

Iago는 Shakespeare가 창조한 악역중에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생생하고 정교하게 묘사되고 있는 인물이다. 극을 세밀히 검토해보면 그는 확실히 지독한 악한이기는 하지 마는 그리면서도 뚜렷한 인간적 개성과 생활신조와 인생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를 추상적인 악의 구현자로만 보기보다는 차라리 인간적인 악역으로 취급함으로써 그의 특이한 성격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ago가 지니는 특이한 성격과 그가 행하는 악행은 그의 배후에 있는 Elizabeth 시대의 문학전통과 연관시켜서 고려함으로써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Shakespeare는 Cincio의 이야기에 나오는 Ensign을 Iago라는 극중인물로 변형시키면서 당시 극장의 여러 악역 중에서 특히, 관객에게 친숙하고 인기있었던 악역이었던, 중세 도덕극에 나오는 Vice를 그 바탕으로 삼았으리라고 추측해도 무방할 것이다. Vice는 신의 초월적인 힘과 그것을 부정하는 악마의 힘이 인간의 생활을 지배한다고 본 당시의 선악 이원(二元)사상에 입각한 악역으로서, 실재인간의 모방이라기

4) Lamb, Hazlitt, Swinburne, Bradley, Lytton Strachey, John Palmer, E.E. Stoll, Granville-Barker, Dover Wilson 등.

5) See A.C. Bradley, *Shakespearean Tragedy*(1904; rpt. London: Macmillan, 1957) p. 171.

보다는 아무 동기 없이 도덕적 선을 파괴하기를 일삼는 악마의 화신과 같은 존재이었다. Elizabeth시대에 이 Vice의 전통에 Machiavellism이 혼합되어 Marlowe의 *The Jew of Malta*의 Barabas, Shakespeare의 초기에 나오는 Richard III 같은 악역이 생기게 되었다. Iago의 극중역할은 Vice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많으며 그의 간악한 음모와 그 실행, 즐기면서 악행에 열중하는 습성, 그리고 관객에게 말하는 독백 속에서 자기의 미래의 계획을 명백하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수법등은 모두 Vice의 특징적 역할과 일치한다.

Shakespeare가 Vice에 의한 무대관습을 이 극 속에서 복귀시킨 것은 물론 그가 이미 오래 전에 극복한 불완전한 기교로 되돌아 간 데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Vice의 전통적 역할이 지니는 효율성과 한계성을 Iago에게 도입하여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⁶⁾ 그러나 Shakespeare는 Iago에게 Vice의 전통적인 역할을 부여하면서도 그를 Vice와 같은 악마의 화신으로는 만들지 않고, 그에게 보다 더 인간적이고 따라서 우리들에게 더 흥미로운 개성과 행동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그를 자연주의적인 이극에 적합한 인간적인 악역으로 부각시켜 놓았다.

Iago is both a stage devil, deriving ultimately from the Vice of the Morality plays, and a character in a more sophisticated Elizabethan tragedy. He hates goodness, at the same time as he has psychological motives for hating Othello.⁷⁾

예컨대 Vice가 악행을 행할 때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약한 자를 속이고 괴롭히는 것은 그의 본성으로 보아 당연한 상투수단이었다. Iago도 Roderigo에게

Were I the Moor, I would not be Iago;
In following him, I follow but myself;
Heaven is my judge, not I for love and duty,
But seeming so, for my peculiar end;
For when my outward action doth demonstrate
The native act and figure of my heart

6) See Wolfgang Clemen, *Shakespeare's Dramatic Art* (London: Methuen, 1972), pp. 68-69.

7) Kenneth Muir, ed., "Introduction" to *Othello*, New Penguin Shakespeare Editi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8), p. 17.

In compliment extern, 'tis not long after
 But I will wear my heart upon my sleeve
 For daws to peck at—I am not what I am. (I.i. 58-66)⁸⁾

라고 스스로 공언하고 있듯이 이중인격을 가진 위선자이다. 그는 극 속에서 시종 성실(honesty)의 가면을 쓰고 Othello를 위시하여 자기 아내 Emilia에 이르기까지 모든 극중인물들을 속이며, 빈번히 무모할 정도로 자기 진심을 드러내 보이는 Roderigo에게도 그 정체가 폭로되지 아니한다. 그가 흉악한 음모를 성공적으로 추진시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누구에게나 “honest Iago”로 통할 수 있었던 위선성 때문이다. 그러나 Shakespeare는 Iago에게

Thought I do hate him as I do hell-pains,
 Yet, for necessity of present life,
 I must show out a flag and sign of love. (I.i. 155-157)

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그의 가장된 의모가 혼세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구실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Iago의 이기주의적인 인간적 성격을 드러내 보이게 하고 있다.

당시의 악역은 그 앞잡이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 관례이고 Barabas에 대한 Ithamore, Richard에 대한 Buckingham이 바로 그 좋은 예이다. 이들은 서로 관례적 공범이라는 기괴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Iago와 Roderigo의 관계는 보다 더 인간적이며 Roderigo는 First Folio의 등장인물란에 표시되고 있듯이 단지 “a gull'd Gentleman”⁹⁾에 불과하며 Iago의 교묘한 솔책에 속고 그의 조롱감이 되고 있을 뿐이다.

2

극이 시작되자 Iago는 Roderigo와 관객에게 그의 Othello에 대한 증오의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Venice의 유력자 세 사람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Othello의 부관 자리를 획득하려고 시도하였다가, 그에게는 멀지 할 만하고 화나는 구실로 거절당하고 말았다. Othello

8) 이 논문에서 text의 인용과 해釈은 Alice Walker and John Dover Wilson, ed., *Othello*, New Shakespeare Edition (C.U.P., 1957)에 따름.

9) Horace Howard Furness, ed., *Othello*, A New Variorum Edition of Shakespeare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63), p. 336.

의 이러한 쳐사는 Iago가

by the faith of man,
I know my price: I am worth no worse a place. (I.i. 10-11)

라고 명언하고 있듯이 자기의 가치를 자부하며 자기야 말로 그 자리에 적임자라고 확신하고 있는 자존심이 강한 Iago에게는 매우 부당한 쳐사로 받아들여진다. 그에게 더욱 화나는 것은 자기를 제쳐놓고 부관 자리에 선택된 인물이 그가 멸시하고 또 그 자리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Forsooth, a great arithmetician,
One Michael Cassio, a Florentine,
A fellow almost damned in a fair wife,
That never set a squadron in the field,
Nor the division of a battle knows
More than a spinster—unless the bookish theoric,
Wherein the toged consuls can propose
As masterly as he; mere prattle without practice
Is all his soldiership. But he, sir, had th'election; (I.i, 19-27)

이렇게 Cassio가 실전에 대하여 완전히 무식인데 반하여 Iago 자신은 어떤 군인인가?

And I, of whom his eyes had seen the proof
At Rhodes, at Cyprus, and on other grounds
Christian and heathen, must be be-le'e'd and calmed
By debtor-and-creditor: this counter-caster,
He, in good time, must his lieutenant be,
And I—God bless the mark!—his Moorship's ancient. (I.i. 28-33)

그는 많은 전장에서 성실하게 봉사함으로써 그의 직업 군인으로서의 진가를 입증하였는데도 그런 자기의 공훈을 잘 알고있을 터인 Othello가 서열("old gradation"—I.i. 37)까지 무시하면서 Cassio를 선임한데 대하여 읊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Iago 자신은 Venice인인데 반하여 Othello는 Moor인이고 Cassio는 Florence인으로 둘 다 외국인이라는 것은 그의 분노를 더욱 더 증대시킨다.

Kenneth Muir는 Iago가 극 안에서 다른 인물들에게 말하는 모든 사실은 후에 확증되지 않는 한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¹⁰⁾ 또 Bradley

10) See Muir, *op. cit.*, p. 16.

도 Iago가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로서 말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진실이 아니며, Iago의 부관 선임에 관한 불평도 Othello가 Cassio를 부관으로 선임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절대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¹¹⁾ 그러나 Shakespeare가 극의 서두에서부터 극중 인물에게 근거 없는 말을 하게 만들어서 고의적으로 관객의 판단을 허려놓으려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Iago는 자기의 본심을 절대로 밖에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고 스스로 호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보는 Roderigo는 돈을 울거내는 목적 이외에는 속일 필요조차 없는 바보이다. 따라서 극 서두에 나오는 Iago의 불평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가 제1막에서 Roderigo에게 괴력하는 그의 생활신조도 그의 신념을 정직하게 토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²⁾

Iago의 불평에는 물론 자기가 기대했던 부관 자리를 빼앗은 Cassio에 대한 무의식적인 시기와 멸시가 혼합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그가 전혀 근거 없는 거짓 말을 날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Iago는 그의 의식에 비친데로 출직하게 진실을 토로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더우기 그의 Cassio에 대한 평가는 어느 시대의 어느 군대에서나 실전에서 단련된 고참병이 이론적 비전투 군인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품어온 견해를 대변한 것이다. Iago는 자기가 적임자라고 믿고 기대한 지위를 거부당하므로써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분노한다. 그리고 그런 부당한 처사는 자기의 인간적 가치를 자부하고 있는 Iago에게는 인간적인 멸시와 자아에 대한 모욕으로까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자존심이 손상된다. 이리하여 Iago는 그 자신의 견해로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직업적, 인간적 동기를 극의 서두에서 이미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자기의 인간적 가치를 자부하고 있는 Iago는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의 사회적 지위가 자기의 가치와 균형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을 품는 반면 세상에서 더 높이 평가받고 있는 인간들을 시기하고 멸시한다. 그의 이러한 생활태도는 Roderigo에게 토로하는 그의 이기주의적인 생활신조에서 나온 것임이 명백하다. 그는 Othello에 봉사하고 있는 것에 대

11) See Bradley, *op. cit.*, pp. 172-173.

12) See Harley Granville-Barker, "Othello," in *Prefaces to Shakespeare*, Vol. II (London: B.T. Batsford, 1958), pp. 99-100.

하여

I follow him to serve my turn upon him.
We cannot all be masters, nor all masters
Cannot be truly followed.

(I.i. 43-45)

라고 말하여 기존사회의 주종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치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그의 신념으로는 받는 보답에 관계 없이 비굴하게 주인에게 충성하는 하인은 정직한 바보이며 결으로만 충성을 가장하면서 음밀히 주인을 속이고 내심으로는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추구하는 자야 말로 똑똑한 인간이다.

Others there are
Who, trimmed in forms and visages of duty,
Keep yet their hearts attending on themselves;
And, throwing but shows of service on their lords,
Do well thrive by them; and, When they've lined their coats,
Do themselves homage. These fellows have some soul,
And such a one do I profess myself:

(I.i. 49-55)

Iago의 이 대사 속에서 우리들은 Machiavelli가 주장한 그대로의 냉정한 이기주의의 신조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생활신조는 그 자체로는 불합리한 것은 아니며 Elizabeth시대의 신홍 시민계급이 가지고 있던 현실적 공리주의를 어떤 점에서는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세적 조화와 질서에 입각한 기존사회에서는 하인은 사랑과 충성으로 주인에게 봉사하고 주인은 그 대가로 하인을 보호해주므로써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었으며 이러한 주종관계의 확립은 또 종교적으로는 신과 인간 상호간의 사랑과 혼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¹³⁾ 그러나 Iago의 의식 속에서는 그러한 전통적 질서의식과는 정반대되는 자기중심적인 자의식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의적 질서에 그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적 질서 쪽이 그의 자아에 따라야 마땅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Iago는 Othello, Cassio, 그리고 최후 장의 Emilia가 대표하는 전통적 가치체계 밖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다. 따라서 그가 흥악한 책략을 꾸며서 중세적 조화의 이상을 상

13) See Irving Ribner, *Patterns in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Methuen, 1960), pp. 96-97.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Othello와 Desdemona의 사랑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것은 어떤 점에서는 속명적인 귀결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여간 철두철미한 이기주의자로서 Iago는 그의 인생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자부하고 있다.

I have looked upon the world for four times seven years; and since I could distinguish betwixt a benefit and an injury, I never found a man that knew how to love himself. (I.iii. 311-314)

Iago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그의 본심을 심중에 깊이 간직한채 Othello에게 충성을 가장하고 극중 모든 인물에게 성실의 가면으로 위장하면서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 만을 추구해 나간다. 그는 자기의 이기주의적인 생활신조의 실현을 위하여 도덕적 양심이나 인간의 감정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굳은 의지와 냉혹한 이성에만 의존하려고 한다. Roderigo가 Desdemona에 대한 연정을 끊을 수 있는 덕이 자기에게는 없다고 한탄하자 Iago는 그를 냉소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Virtue! a fig! 'tis in ourselves that we are thus or thus. Our bodies are gardens, to the which our wills are gardeners.....Why, the power and corrigible authority of this lies in our wills. If the beam of our lives had not one scale of reason to poise another of sensuality, the blood and baseness of our natures would conduct us to most preposterous conclusions. but we have reason to cool our raging motions, our carnal stings, our unbidden lusts; whereof I take this, that you call love, to be a set or scion. (I.iii. 319-332)

이 대사에는 의지와 이성을 중요시하는 Iago의 인생철학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여기에서 “virtue”의 뜻을 Spivack의 해석을 따라

the divine grace flowing into the otherwise helpless nature of man, creating there the power toward good without which salvation is not possible.¹⁴⁾

이라고 보면 Iago는 신을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인정하려고 한 중세적 종교의식을 완전히 거부하고 도리어 인간에게 자기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고 보는 현세적 의식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Iago의 이러한 현실주의적 인식으로는 모든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이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을 올바르게 지향시키기 위하여는 인간의 의지는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인간의

14) Spivack, *op. cit.*, p. 87.

추악한 본능과 정욕도 이성의 작용에 의하여 통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Iago의 이런 신조는 그대로 실천에 옮겨져서 극 속에서 행하고 있는 그의 행위는 전부가 강렬한 의지와 예민한 이성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이런 인간적 특성으로 보면 그는 능히 고금의 대철학자에 필적 할 만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Not Socrates himself, not the ideal sage of the Stoics, was more lord of himself than Iago appears to be. It is not merely that he never betrays his true nature; he seems to be master of *all* the motions that might affect his will.¹⁵⁾

인간의 의지와 이성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Iago의 생활신조는 그 자체로는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Elizabeth시대 사람들의 심리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이성이 항상 감정을 지배하는 것은 그들의 하나의 이상이었고 Iago의 신조도 어떤 점에서는 그런 이상을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ago는 그토록 탁월한 그의 의지와 이성을 감정이나 본능과 완전히 유리시켜서 오직 그의 이기심과 융합시킬 뿐이다. 따라서 그는 그 자신을 도덕적인 선이나 또는 그 어떤 의적 질서나 조화에 연관시켜서 보는 능력을 결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보면 그는 보통 인간들과 완전히 격리된 존재이다.

Iago is a man without passions; he is an embodiment of one layer of human activity which has no relation to any other layers; he is separated from ordinary human beings on both sides of his nature, the lower and the higher. He has no lust to link him with the animals, and he has no capacity for seeing himself in relation to the state or the universal order of things. He is an unscrupulous individualist.¹⁶⁾

Iago는 인간성 안에 이성과 육체적 욕구 밖에는 인정치 않으며 따라서 그는 남녀 사이에 고상한 정신적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Roderigo가 자기의 Desdemona에 대한 연정은 Iago가 말하는 것과 같은 음란한 육욕이 아니라고 말하자 그는 사랑을 정의하여 이렇게 말한다.

It is merely a lust of the blood and a permission of the will.

15) Bradley, *op. cit.*, p. 178.

16) Theodore Spencer, *Shakespeare and the Nature of Man* (1942; rpt. New York: Collier Books, 1966), p. 132.

(I.iii. 334-335)

그리고 Othello와 Desdemona의 사랑에 대해서도

It cannot be that Desdemona should long continue her love to the Moor... nor he his to her; it was a violent commencement, and thou shalt see an answerable sequestration..... These Moors are changeable in their wills..... The food that to him now is as luscious as locusts, shall be to him shortly as bitter as coloquintida. She must change for youth: when she is sated with his body, she will find the error of her choice. (I.ii. 341-350)

라고 말하며 그의 냉소적인 논리를 전개한다. 그는 사랑을 이성을 가지고 냉각시켜야 되는 육욕의 파생물로 밖에는 보지 않는 까닭에 자기 말의 진실성을 완전히 믿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인식으로는 Othello와 Desdemona의 결혼도 서로의 육체적 매력에 의하여 맺어진 관계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Othello는 떠돌아 다니는 야만인으로 또 Desdemona는 성욕의 상대자로 흑인을 구하는 도착(倒錯)된 욕정을 가진, 퉁아빠진 Venice 여인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진 Iago가 Othello 부부의 결혼을 파멸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는 많은 문제에 대하여 수다스러우나 사랑의 문제만큼 그를 열중시키고 독설적인 부정을 주는 것도 없다. 그는 인간의 정신적인 사랑이나 고귀한 감정을 전혀 이해할 줄 모르는 “emotional eunuch”¹⁷⁾에 불과하다.

3

Iago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솔직하게 설명하는 독백은 그의 성격을 해명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이극에 나오는 그의 독백은 9개소가 있고¹⁸⁾ 그 중에서 그의 복수의 동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제1, 제2, 제9독백은 특히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ago에게 동기를 인정치 않는 비평가들은 대개 그는 어떤 생활하에서도 사실을 말하지 않는 악한이기 때문에 그의 독백도 믿을 수 없는 것

17) *Ibid.* p. 133.

18) I. iii. 380-402; II.i. 280-306; II.iii. 46-61, 329-355, 374-380; III.iii. 323-335; IV.i. 44-48, 93-103; V.i. 11-22.

이라는 입장은 취한다.¹⁹⁾ 그러나 이런 견해는 Elizabeth시대 국의 독백의 관례로 보아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Shakespeare가 고의적으로 관객의 판단을 흐리기 위하여 독백을 이용하였다고 믿기도 어렵다. 독백은 당시의 국 속에서 당사자의 성격적 특성을 노출시키고 관객이 알 필요가 있는데도 다른 방법으로는 뚜렷하게 얻어 지기가 어려운 정보를 제공해 주는 수단으로서 흔히 이용되었다. 특히 당시 국의 전형적인 악역인 Vice는 악마의 화신과 같은 존재이었기 때문에 국중에서 다른 인물들을 항상 속임으로써 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고 자기의 정체와 계획을 관객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는 독백 밖에는 의존할 방법이 없었다. 이 Vice의 전통을 이어 받은 Iago도 이중 인격을 가진 위선자로서 국중에서 항상 성실을 가장 하여 다른 인물들을 속이면서 그의 심중에 감춘 악의로써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추구해 나간다. Iago의 이런 극적 역할로 보아 독백을 통하여서 밖에는 그의 심중을 드러내놓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from the nature of Iago's role, he cannot reveal himself except in soliloquy; and there are no soliloquies in Shakespeare's plays—or, indeed, in any Elizabethan plays—which do not express the genuine feelings or beliefs of the characters speaking them.²⁰⁾

Iago가 그의 독백 속에서 언급하는 말, 특히 그의 복수의 동기 중에는 열핏보기에 우리들이 좀 믿기 어려운 것이 혼합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Iago가 고의적으로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의 비틀어진 의식구조의 소산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Iago가 독백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기들이 비록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실은 못되더라도 적어도 그 자신이 실제로 느끼고 있고 그 자신의 견해로는 진실로 보이는 사실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Vice는 독백 속에서 그의 심중을 관객에게 솔직하게 토로함으로써 역으로 그의 사악한 친성과 의도를 드러내 보여주었는데 Iago의 독백의 역할도 그와 꼭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1독백 속에서 Iago는 Othello를 증오하는 동기로서 Roderigo에게는

19) See Nevill Coghill, "From Shakespeare's Professional Skills", in *Shakespeare, Othello: A Casebook*, ed. by John Wain (ed. cit.), pp. 227-228.

20) Muir, *op. cit.*, p. 16.

토로하지 않던 새로운 사실에 언급한다.

I hate the Moor;
And it is thought abroad that 'twixt my sheets
He's done my office. I know not if't be true;
Yet I, for mere suspicion in that kind,
Will do as if for surely.

(I.iii. 384-389)

이 동기를 독백 속에서 비로소 말하는 것은 그 내용이 수치심을 동반하기 마련인 성적 질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어서 Roderigo에게 말하기 거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Othello가 Iago의 아내 Emilia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Iago 스스로가 말하고 있듯이 세상에 유포되고 있는 소문에 불과하므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사실인 것 같이 대처하겠다는 것은 Iago의 성격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소문이 세상에 나 있다는 것은 자기가 뜻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의식이 자존심이 강한 Iago에게 아내의 부정 자체 보다도 더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ago는 계속하여 Cassio의 자리를 빼앗을 궁리를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할 방법을 생각해 내려고 애쓰고 있다. 그리고 Othello와 Cassio의 성격적 특성을 이용하여 자기의 음모를 성취시키려고 꾀함으로써 그 자신의 성격적 야비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He holds me well;
The better shall my purpose work on him.
Cassio's a proper man: let me see now;
To get his place, and to plume up my will
In double knavery. How? How? Let's see:
After some time to abuse Othello's ear
That he is too familiar with his wife;
He hath a person and a smooth dispose
To be suspected—framed to make women false.
The Moor is of a free and open nature
That thinks men honest that but seem to be so,
And will as tenderly be led by th'nose
As asses are.

(I.iii. 388-400)

Coleridge는 Iago의 이 제1독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The last speech, Iago's soliloquy, shows the motive-hunting of motiveless malignity—how awful! In itself fiendish; while yet he was allowed to bear the divine image, it is too fiendish for his own steady view, He is a being next to devil, only *not* quite devil—and this Shakespeare has attempted—executed—without disgust, without scandal.²¹⁾

여기에 나오는 「동기 없는 악의의 동기 탐구」라는 유명한 말은 종래의 Iago 비평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다수의 비평가들이 Iago의 성격과 동기를 왜곡 해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대개 Iago를 악의 상징 또는 반악마로 보고 그가 열거하는 동기는 자기의 악행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Iago의 악의는 물론 부정할 수 없고 또 그가 Othello의 성격적 고귀성과 결함을 가히 악마적이라고 부를 만한 정확성과 교활성과 냉혹성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그의 악의를 동기 없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은 견해라고 볼 수는 없다. Iago가 이 득백 속에서 찾고 있는 것은 Coleridge의 말처럼 복수의 동기가 아니라 차라리 그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Iago는 제2득백에서 다시 그의 복수의 동기에 대하여 언급한다.

And I dare think he'll prove to Desdemona
 A most dear husband, Now, I do love her too,
 Not out of absolute lust—though peradventure
 I stand accountant for as great a sin—
 But partly led to diet my revenge
 For that I do suspect the lusty Moor
 Hath leaped into my seat, the thought whereof
 Doth like a poisonous mineral gnaw my inwards;
 And nothing can or shall content my soul
 Till I am evened with him, wife for wife;
 Or failing so, yet that I put the Moor
 At least into a jealousy so strong
 That judgement cannot cure.

 I'll have our Michael Cassio on the hip,
 Abuse him to the Moor in the rank garb—
 For I fear Cassio with my night-cap too

(II.i. 284-301)

21) Terence Hawkes, ed., *Coleridge on Shakespear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9), p. 190.

여기에는 몇 개의 동기가 열거되고 있는데 제1독백에서 이미 언급된 Othello와 Emilia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반복하고 있는 외에 Iago 자신과 Desdemona에 대한 정욕, Othello에 대하여 자기가 당한 것과 같은 동류 복수를 하고 싶다는 욕구, 그리고 Cassio도 Emilia와 내통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등의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되고 있다. 이들 동기들은 Bradley가 지적하였듯이 생각나는대로 말해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고 또 현실적 근거도 희박한 것 같이 보인다.²²⁾ 특히 Cassio에 대한 의심은 독백 말미에서 우연히 떠오른 순간적인 착상이라는 인상을 주는 까닭에 Coleridge가 말한 동기탐구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Othello에 대한 Iago의 의심은 제1, 제2독백에서 거듭 언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에서 나중에 Emilia가

Some such squire he was
That turned your wit the seamy side without,
And made you to suspect me with the Moor. (IV.ii. 145-147)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Iago가 정말로 Othello와 Emilia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Iago 자신이 미워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Othello의 고결한 성격으로 보나, 또 극 전체에서 우리가 받는 인상으로 보면 Othello와 Emilia간의 부정한 관계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D.J. Snider 같은 비평가의 견해²³⁾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Iago의 의심과 세상에 소문이 나 있다는 그의 말 자체를 허위라고 규정할 이유는 없다. 만일 그의 의심이 즉석에서 꾸며낸 것이라는 인상을 관객에게 주는 것이 Shakespeare의 의도였다면 뒷장에서 Emilia의 그 대사를 삽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Othello에 대한 Iago의 의심은 결코 순간적인 동기탐구라고 볼 수 없고, 또 Iago의 성격이나 의식구조로 미루어 보더라도 Othello에 대한 성적질투가 Iago의 복수의 중요한 동기의 하나가 된다고 단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Iago가 제1독백과 제2독백에서 열거하고 있는 동기들은 전부가 그의 성적 질투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ago는 순결한 정신으로 맷어진 결혼을 밀지 않으며 사랑을

22) See Bradley, *op. cit.*, pp. 183-184.

23) See Furness, *op. cit.*, pp. 425-428.

정욕 이상으로 생각할 줄을 모른다. 따라서 그는 남녀가 육체적 욕구와 분리된 다른 어떤 관계를 맺고 존재한다고 믿지 않으며, 남녀가 가까이 있으면 으레히 정욕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누구에게나, 심지어 그 자신에게 까지도 적용하는 육욕주의자이다. 이런 의식구조를 가진 Iago가 스스로 Desdemona를 사랑한다고 밀하고 또 Othello뿐만 아니라 Cassio에 대해서까지 성적 질투를 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처사이기도 하다. 그가 보는 Cassio는 미 남인테다 사교성에도 뛰어나고 있으므로 그것은 마땅히 여자를 훌릴만한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Cyprus 부두에서 Iago는 Cassio가 Emilia와 Desdemona에게 예의적인 인사로써 키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지켜보았는데²⁴⁾ 그것이 육욕주의자 Iago에게는 무의식적으로 Cassio와 그녀들 간의 관계를 의심 할만한 증거로 생각케 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극의 뒷장에서 Emilia가 Desdemona의 손수건을 Iago에게 넘겨줄 때의 대화

Emilia. Do not you chide; I have a thing for you.

Iago. A thing for me? it is a common thing—— (III.iii. 303-304)

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자기 아내를 정숙한 여자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사실로 미루어 Iago가 독백 속에서 열거하고 있는 동기들은 그 자신의 견해로는 진실로 보이는 사실들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Iago의 복수는 확실히 그가 들고 있는 동기와 너무나 불균형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악마의 화신만이 그런 복수를 기도할 수 있었으리라고 흔히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이 극의 비참한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말과 Iago의 동기를 적결해서 생각하는데서 나온 인상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Shakespeare의 극작품들이 원래 서재의 독서인이 아니라 극장의 관객을 위하여 쓰여졌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들이 이 극의 상연을 처음으로 지켜보는 관객의 입장에 있고, 극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무서운 비극적 결말에 대하여 뚜렷하게는 알고 있지 않

24) See II.i. 97-102, 167-176.

다고 가정할 때 우리들은 이 극과 Iago의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Iago가 자신의 복수가 초래하게 될 무서운 비극을 극의 시초부터 알고 그의 행동을 시작했다고 볼 아무런 이유도 Shakespeare는 제시해주고 있지는 않다. Iago가 원래부터 Cassio와 Desdemona의 이중살인을 구상했다는 암시는 극 속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Iago는 Othello에게 Desdemona에 대한 의심을 야기시키면서도 그것이 어떤 무서운 결말을 초래할 것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극적 결말을 전적으로 Iago의 음모의 소치 만으로 돌리는 것도 그의 능력을 과대시 하는 견해이며,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그의 희생자들의 성격상의 장단점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초래되고, 또 각 단계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도 Iago의 행동을 도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Iago를 치밀한 계산하에 행동하는 인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는 사전에 원대하고 일관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음모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사태에 맞추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그 자신도 끌려 들어가면서 그때마다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위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이다.

He is not a long-term stratégist, but a superbly skilful and opportunist tactician. And the moment we realize this his progress becomes immeasurably more exciting. His plot develops as it goes along, and some move in it, so far from being intended, are forced on him. He has to evade dangers and turn fortuitous happenings to account.²⁵⁾

Iago의 Othello에 대한 증오는 심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가 Roderigo를 내세워 최초에 꾸민 음모는 Othello의 Desdemona와의 음밀한 결혼을 그녀 부친에게 알려서 Othello를 곤경에 몰아넣음으로써 그의 행복에 손상을 가하는 일이었다.

Call up her father,
Rouse him, make after him, poison his delight,
Proclaim him in the streets, incense her kinsmen,
And, though he in a fertile climate dwell,
Plague him with flies; though that his joy be joy,

25) M.R. Ridley, ed., "Introduction" to *Othello*, Arden Shakespeare Edition, 7th ed. (1958; rpt. London: Methuen, 1968), pp. Ixi-Ixii.

Yet throw such changes of vexation on't
As it may lose some colour.

(I.i. 68-74)

이 음모는 Othello의 위엄있는 대처에 의하여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Iago는 Othello에 대한 복수를 서두르지 않고 당분간은 충성을 가장하여 그에게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였다.

다음에 Iago가 계획한 음모는 Roderigo의 Desdemona에 대한 사랑을 성취시켜 줌으로써 Othello를 cuckold로 만드는 것이었다.

I have told thee often, and I re-tell thee again and again, I hate the Moor.
my cause is hearted; thine hath no less reason, Let us be conjunctive in our
revenge against him. If thou canst cuckold him, thou dost thyself a pleasure,
me a sport.

(I.iii. 362-367)

이 음모는 Othello의 결혼 자체를 파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보면 첫 번째 음모보다는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Iago가 노리고 있는 것은 Othello에 대한 복수로서 보다는 오히려 Roderigo에게서 돈을 더 울거내자는 이해타산에 더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Iago의 Othello에 대한 복수는 아직 진박성이나 짐작성이 결여되고 있다. 여기에서 Iago가 자기의 음모를 오락(sport)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주목해둘 필요가 있다.

제1독백에 이르러 Iago는 비로소 그의 복수의 계획을 짐작하게 꾸미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의 Othello에 대한 복수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가 노리는 일차적인 목표는 Cassio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Cassio's a proper man: let me see now;
To get his place, and to plume up my will
In double knavery. How? How? Let's see:

(I.iii. 390-392)

그리고 Iago가 이 독백을

I have't. It is engendered. Hell and night
Must bring this monstrous birth to the world's light. (I.iii. 401-402)

라고 끝맺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복수방법이 간악한 것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제2독백에서 Iago의 계획은 좀 더 구체화되고 Othello에게서 받은 모

욕을 아내와 아내를 교환하는 동류복수로 상환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그를 판단력으로 둘이킬 수 없을만큼 강한 질투에 몰아넣어 그의 정신적 평화를 광기로까지 몰고 가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Iago가 이 제2독백도

'Tis here, but yet confused;
Knavery's plain face is never seen till used. (II.i. 305-306)

라고 끝맺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복수계획이 상세한 세목에 이르기까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Iago가 이렇게 그의 독백 속에서 음모를 꾸밈으로써 자기가 취할 장차의 행동을 관객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수법은 Vice의 상투적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Vice는 성격적으로는 극 속에서 아무런 동기 없이 도덕적 선을 파괴하는 악의 화신이었지만 그의 극적역할은 자기가 행하려고 하는 간악한 악행을 여러 단계에 걸쳐 관객에게 조금씩 미리 알려줌으로써 극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를 암시해주고 또 그가 예고한 그대로 극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있었다. Iago가 극 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Vice적 역할은 극중인물로서의 그의 성격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고 있음은 주목할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Iago는 Vice처럼 그의 독백 속에서 단계적으로 음모를 꾸며나가며 회를 거듭할수록 점차적으로 그 간악성을 더해가고 있는데 Iago의 이런 Vice적 수법은, 사태의 진전에 그때마다 민첩하고 유효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추구해 나가는 그의 기회주의자적 성격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성격상으로는 Iago와 Vice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전통적 Vice의 본질적 성격은 초자연적인 악의 상징으로서 지옥에서 지상에 나타나서 여러가지 악행을 행하고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악마와 같은 존재이었다. 따라서 그의 대사 속에서 지옥에 대한 언급이 빈번히 나오는 것은 그의 본질로 보아 당연한 일이었다. Iago도 마찬가지로 빈번히 지옥을 그의 대사 속에 끌어들인다. 예컨대 Iago는 제1독백 끝에서 그의 복수계획의 대체적인 윤곽이 정해지자

Hell and night
Must bring this monstrous birth to the world's light. (I.iii. 401-402)

라고 말하고 또 제4독백 속에서도

Divinity of hell!

When devils will the blackest sins put on,
They do suggest at first with heavenly shows,
As I do now;

(II.iii. 343-346)

라고 말하여 자기의 흉악한 음모 수행의 방법을 지옥과 연관시키고 있다. Iago의 이런 대사는 그를 악마 또는 그와 유사한 악의 상징적 존재로 보고 또 그의 극적 역할을 악마의 그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증거로 흔히 간주되어 왔다.²⁶⁾

그러나 이런 대사는 Elizabeth시대 극의 악역들이 으례히 사용한 상투 구이어서 관객의 귀에 익은 “stagey language”였다. 따라서 Shakespeare도 Vice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Iago에게 당시의 관례에 따라 그런 대사를 지껄이게 하였을 뿐이지 결코 그의 악마성을 강조하려고 그것들을 삽입한 것은 아닐 것이다. 또 선을 신이나 하늘과 연관시키고, 악을 악마나 지옥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던 당시의 선악관념에 비추어 생각해 보아도 Iago가 자기의 음모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간교하고 빈틈없는 악마적 수단을 사용할 것임을 관객에게 알리는 증거로 볼 수는 있어도, 그의 출신이 지옥임을 자인하는 증거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frequent references to Heaven and Hell, angels and devils make a theological interpretation necessary. On the contrary, their very frequency deprives them of any imaginative potency. They are a part of the play's vivid realism, setting it firmly in the contemporary world. ‘Devil’ is a cliché in this play, a tired metaphor for ‘very bad’, as ‘angel’ is for ‘very good’.²⁷⁾

Iago는 제3득백에 이르러 그의 원래의 두개 계획중의 하나인 Cassio의 부관직 탈취를 실현시킬 계략을 구체화시킨다. 술에 약한 Cassio를 보초 근무중에 취하게 만들고 Roderigo를 내세워 그와 싸움을 벌리게 하여 소란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실천에 옮겨지고 Iago가 예상하고 바란대로 Cassio는 부관 자리를 면직 당한다.

26) See E.K. Chambers, *Shakespeare: A Survey* (1925; rpt.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4), p.171. Also E.E. Stoll, “Source and Motive in *Macbeth* and *Othello*”, in *Shakespeare: Modern Essays in Criticism*, ed. by Leonard F. Dean (O.U.P., 1967) p.321.

27) Helen Gardner, “The Noble Moor”, in *Shakespeare Criticism, 1935-1960*, ed. by Anne Ridler (O.U.P., 1963), pp.351-352.

Iago는 제4독백에서 Cassio가 Desdemona를 중개로 하여 복직운동하는 것을 이용하여 원래의 계획중의 다른 하나, 즉 Othello에게 Desdemona의 정숙에 관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계략을 구체화시킨다. 이 독백 끝에서 Iago는 비로소 Desdemona를 자기의 음모 속에 끌어 들이고 그녀의 속덕을 그 도구로 이용할 계략을 꾸민다.

So will I turn her virtue into pitch,
And out of her own goodness make the net
That shall enmesh them all.

(II.iii. 353-355)

이 계획은 Iago가 그녀의 불행을 자기의 복수의 대상물로 삼으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가 보다는 Cassio와 Othello에 대한 복수를 성취하기 위하여는 그녀가 불가피한 이용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Iago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²⁸⁾

제5독백에서 Iago는 Cassio가 복직탄원을 위하여 Desdemona에게 접근하는 협장을 Othello에게 보임으로써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려는 계략을 꾸민다. 이로써 Iago의 복수음모는 그 구체적인 계획이 전부 완성된 셈이다. 그가 이 독백을

Ay, that's the way;
Dull not device by coldness and delay,

(II.iii. 379-380)

라는 말로 끝맺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이제 구체화된 자기의 계획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려고 서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부터 Iago의 독백이 지금까지와는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극의 이 단계까지에 Iago가 구체적으로 꾸며 놓은 복수 방법은 Cassio에게서 부관 자리를 빼앗고, 또 Othello에게 Desdemona에 대한 성적 질투를 야기시키는 것일 뿐, 그들중 어느 한사람도 살해하기를 바라거나 의도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5

Othello에게 복수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 오던 Iago는 제3막 제2장까지에 그 구체적 구상이 확정되자, 다음의 「유혹의 장」에서 드디어

28) See Ridley, *op. cit.*, pp. Ixii-Ixiii.

Othello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한다. Iago의 음모로 부관 자리를 면적당하고, 또 그가 사주한 대로 Desdemona에게 복지 중재를 부탁하려 왔던 Cassio는 Othello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 황급히 사라진다. 이것을 이용하여 Iago는

Ha! I like not that. (III.iii. 35)

라는 표면상 대단한 의미도 없을 것 같은 한 마디의 애매한 말로 Othello의 심중에 의혹의 씨를 뿌리고, 교활하게 Othello의 반응을 살펴 가면서 교묘하게 그의 함정을 넓혀 나간다. 그는 Othello를 속이기 위하여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늘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애매한 진실의 일부분을 말하며, 인종의 차이를 이용하여 Othello를 그럴사하게 유혹하는 것이다. 이민족인 Othello가 Venice의 습관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Iago는

I know our country disposition well;
In Venice they do let heaven see the pranks
They dare not show their husbands; their best conscience
Is not to leave't undone, but keep't unknown. (III.iii. 203-206)

라고 말하여 위선 일반 Venice 여인의 특성에 언급하고, 이어서 Desdemona에 대하여

She did deceive her father, marrying you;
And when she seemed to shake and fear your looks,
She loved them most. (III.iii. 208-210)

라고 말함으로써 Othello의 잠재의식 속에서 잠자고 있는 Brabantio의 이전의 경고

Look to her, Moor, if thou hast eyes to see:
She has deceived her father, and may thee. (I.iii. 292-293)

를 일깨워 줌으로써 Othello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 Othello를 유혹하는데 이보다 더 유효한 수단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Othello는 Iago를 성실한 인간으로만 알고 있고 따라서 그의 음모에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은 까닭에 이 악한의 함정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유혹의 장」에서 Iago가 Othello와 정면으로 대결하면서도 그의 음모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갈 수 있는 것은 그가 Vice처럼 시종 성실의

가면을 쓰고 행동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Iago가 수 행하고 있는 Vice적 역할은 관객에게는 그의 정체를 드러내 보이게 하면서도 Othello에게는 그것을 조금도 내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극적 아이러니를 높여주면서, 또 동시에 그의 이중인격자적인 성격을 여실히 드러나게 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예컨대 Iago가 Othello에게

O, beware, my lord, of jealousy;
 It is the green-eyed monster, which doth mock
 The meat it feeds on: that cuckold lives in bliss
 Who, certain of his fate, loves not his wronger;
 But, O, what damned minutes tells he o'er
 Who dotes, yet doubts, suspects, yet fondly loves! (III.iii. 167-172)

라고 말할 때 관객에게는 Iago의 악랄한 의도를 드러내 보이는 의미를 가지면서, Othello에 대하여 도리어 거꾸로 그의 성실을 뒷받침하는 말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이중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관객은 Iago의 독백을 통하여 그가 Othello를 판단으로 둘어킬 수 없을 만큼 강한 질투에 몰아넣고 싶다는 의도를 토로하는 것을²⁹⁾ 들었기 때문에 Othello가 질투의 희생물이 되어 처참한 괴로움을 받게 되기를 Iago가 열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Othello에게는 이 대사가 도리어 질투에 압도되지 말도록 타이르는 충고로 들리어져서 자기의 성실을 증명하는 말로 받아들여질 것을 Iago는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는 제2독백에서

Make the Moor thank me, love me, and reward me,
 For making him egregiously an ass,
 And practising upon his peace and quiet
 Even to madness. (II.i. 302-305)

라고 말한 그대로를 실천하고자 책략하고 그려드로써 관객에게 그의 냉혹한 위선자적 성격을 숨김 없이 노출한다.

Othello에 대한 이러한 책략이 성취되고 또 Cassio에게서 부관의 자리를 빼앗게 되면 그것으로 Iago는 만족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그가 원래 기도한 복수방법이었고, 그 속에는 Desdemona는 물론이고 Cassio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Iago는 그의 원래의 복수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로서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둘발적인 사태에

29) Iago의 제2독백 참조.

직면하게 된다. 그는 장기적인 계략을 꾸미는데 보다는 임기응변으로 행동하는데 더 민첩한 인간이다. 장기에 비유해서 말하면 한 수 앞을 정확히 내다보는 데는 능숙하나 두 수 앞은 내다보지 못하며, 따라서 그의 다른 인물들에 대한 성격판단도 편향적으로는 예민하나 본질적인 데 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성질의 것이다. 이러한 Iago의 성격적 특성이 각 단계마다 관객 앞에서 바로 다음에 취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수행하고나면 또 다음 계획에 착수해가는 Vice의 극적 기능이 그대로 그에게 주어진 데서 초래된 결과임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Iago는 Othello를 유혹하는데 있어서 그 나름대로 신중과 속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Othello의 질투를 광적인 상태로까지 몰아갈 때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전혀 예기치 못하였다.

Othello. Villain, be sure thou prove my love a whore;
Be sure of it; give me the ocular proof; [takes him by the throat
Or by the worth of mine eternal soul,
Thou hadst been better have been born a dog
Than answer my waked wrath!

Iago. Is't come to this?

Othello. Make me to see't; or, at the least, so prove it,
That the probation bear no hinge nor loop
To hang a doubt on; or woe upon thy life! (III.iii. 361-368)

이렇게 Othello가 그의 격렬한 분노를 뜻밖에도 Iago 자신에게 폭발시켜 그의 목을 잡고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자기의 심적 고뇌에 대한 해결을 단번에 지우고 말겠다고 조급하게 나오게 되자 Iago는 잠시 동안이나마 놀래고 겁에 질린다. 이제 Othello를 판단력으로 둘이킬 수 없는 질투로 몰아넣는다면가 Cassio의 부관 자리를 빼앗는다면가 하는 그런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라 서툴게 대처했다가는 자기 생명이 위험함을 Iago는 절실히 느낀다. 그는 지금까지 서서히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그의 음모를 진행시켜 왔으나 이 순간부터는 그의 원래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수 밖에 없게 된다.

It is at this point, I think, that Iago realizes that he has miscalculated. He counted on being able to put Othello into a jealousy so strong that judgement could not cure; but he did not reckon on part of its strength being directed so dangerously against himself. Further, Othello still has enough "judgement" left to demand, with violence, what Iago knows he cannot

produce, ocular proof. From this moment Iago sees that, for his own safety, both Cassio and Desdemona must be killed, and as soon as possible, though neither death was part of the original plot.³⁰⁾

이렇게 절박한 위기에 몰리면서도 Iago가 그것에 임기응변으로 민첩하게 대처해 나가는 의지력과 기민성 그리고 대담성은 놀랄만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는 곧 Cassio와 함께 잠자면서 들었다는 그의 꿈꼬대 이야기를 꾸며내고, 다시 조금 후에는 Desdemona의 손수건이 그의 수중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Othello에게 해蚰으로써 이 위기를 무난히 벗어나며, 나아가 Othello에게 Desdemona와 Cassio 사이의 부정한 관계를 확신시킨다. 이리하여 Othello는 그들에게 취할 태도를 결정하게 되고 Iago는 그의 부탁을 받아 Cassio를 살해할 것을 약속하므로써 그의 부관으로 임명된다. 이 때에 그들이 교환하는 대사는 무서운 비극적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Othello.

Now art thou my lieutenant.

Iago. I am your own for ever.

(III.iii. 480-481)

이제 Iago는 자신을 위험에 완전히 내맡겼으며 Othello가 그를 놓아주지도 않을 것이다. 일단은 위기를 넘겼지만 성실의 가면 아래 감추어온 그의 Vice적 위선자의 정체가 언제 폭로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따라서 Iago는 자기가 추진해온 터무니 없는 음모의 뒷수습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Iago의 탁월한 지력과 기민성으로 보아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응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Iago의 성격에는 Vice의 또 다른 특성의 하나가 부여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Vice는 본래 아무 동기 없이 악을 위한 악을 일삼는 악역이었기 때문에 그가 무대 위에서 냉소적 즐거움을 가지고 비극적인 음모를 꾸며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Iago에게는 Vice와 달리 지나칠 정도로 많은 동기와 인간적 개성이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도 Vice처럼 지칠줄 모르는 열성을 가지고 악행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커다란 기쁨을 맛보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는 보초 근무중인 Cassio를 술에 취하게 하여 부관 자리에서 면직 당하게 만드는 음모를 성공적으로 수행시킨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 오자

30) Ridley, *op. cit.*, pp. 115-116.

by the mass 'tis morning;
Pleasure and action, make the hours seem short: (II.iii. 368-369)

라고 외쳤다. 그가 얼마나 흥겹게 자기의 음모 수행에 몰두하였는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대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Iago는 자기가 주입한 독에 감염되어 이미 질투에 빠지기 시작한 Othello가 쳐참한 모습을 하고 등장하는 것을 보자 제6독백 속에서

Look where he comes! Not poppy, nor mandragora,
Nor all the drowsy syrups of the world,
Shall ever medicine thee to that sweet sleep
Which thou owedst yesterday. (III.iii. 332-335)

라고 말하여 자기의 계략이 뜻한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는 데에 잔인할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Iago는 다시 제7독백에서도 강한 질투에 완전히 사로잡히고만 Othello가 격렬한 고뇌를 이기지 못하여 기절하는 것을 보고

Work on.
My medicine, work! Thus credulous fools are caught;
And many worthy and chaste dames even thus,
All guiltless, meet reproach. (IV.i. 44-48)

라고 말하면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는 흥분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Iago는 Othello의 평온한 마음 속에 폭풍과 노도를 조성함으로써 자기의 계획이 성취되어가고 있는 데에 마치 예술가가 자기의 구상을 작품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맛보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만끽(滿喫)하고 있는 것이다. Iago를 가리켜 Hazlitt가 「현실생활에 있어서의 비극의 애호가」("an amateur of tragedy in real life")³¹⁾로, Swinburne는 「현실생활에 있어서의 계략의 예술가」("a contriving artist in real life")³²⁾로 평하고 또 Bradley가 그에 대하여

Iago.....is not simply a man of action; he is an artist. His action is a plot, the intricate plot of a drama, and in the conception and execution of it he experiences the tension and the joy of artistic creation.³³⁾

31) William Hazlitt, *Characters of Shakespeare's Plays*(O.U.P., 1916), p. 45.

32) Quoted by G.-Barker, *op. cit.*, p. 103.

33) Bradley, *op. cit.*, p. 188.

이라고 평한 것은 다 Iago의 그런 성격적 특성을 잘 설명한 말들이다.

그러나 Iago가 음모를 구상하고 추진시켜 나가면서 느끼는 만족감은 악을 위한 악을 행하는 데서 오는 Vice적 만족감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지력과 역량을 자신하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다. 그는 Roderigo가 그에게 설복되어 가진 땅을 모조리 팔아 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퇴장한 후에 바로 이어지는 제1독백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Thus do I ever make my fool my purse;
For I mine own gained knowledge should profane
If I would time expend with such a snipe
But for my sport and profit.

(I.iii. 381-384)

Iago는 자기의 뛰어난 지력을 너무나 자만하고 있는 까닭에 이득 뿐만이 아니라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지력을 Roderigo 같은 열간 이에게는 행사하기 조차도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Iago가 말하는 오락이란 그가 Roderigo에게 사기꾼 역할을 하는 행위 자체에서 얻는 즐거움이라기 보다는 그를 자유자재로 조종함으로써 자기의 지적 우월감을 만족시키는 데서 얻는 즐거움이다. Othello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Iago는 자기의 정확한 지력에 의하여 마련한 함정 속에 그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영리함에 매혹되어 결국에는 자기 만족감에 너무나 도취한 나머지 자기에게 닥쳐오고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무모할 정도로 대담하게 그의 음모를 추진시켜 나간다. 그리하여 그는 그 스스로 마련한 계략 속에 자신도 엉켜 잡히어 들어가게 하여서 자신의 파멸을 재촉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Iago continues on course for reasons other than self-preservation. He is intoxicated; he has bull-ring fever. He is the perfect type of all those insignificant little men—who all at once feel the urge to destroy another human being, and get drunk on the realization that this large, important action is suddenly, incredibly in their power.³⁴⁾

34) Wain, *op. cit.*, p. 13.

Iago는 Roderigo를 사주하여 Cassio를 살해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그의 마지막 독백인 제9독백에서 그들이 서로 싸우다 어느 한 쪽이나 또는 둘이 다 죽게 되기를 바라는 그의 희망을 토로하고 이어서 그들이 죽어야 할 이유를 밝힌다. Roderigo가 살아 있으면 Iago가 Desdemona에게 준다고 속여 편취한 돈과 보석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Cassio가 살아 있으면 Othello가 그에게 Iago가 한 말을 확인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들 동기는 Iago가 지금까지 벌여온 터무니 없는 음모를 감추기 위하여, 또 그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Iago가 Cassio를 죽여야 하는 또 하나의 동기로써 그가 무의식적으로 토로하는 새로운 사실에 우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if Cassio do remain,
 / He hath a daily beauty in his life,
 That makes me ugly; (V.i. 18-20)

Iago에게 열등감을 일으키는 Cassio의 매력에 언급하고 있는 이 대사는 Iago의 성격을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Othello에 대한 그의 음모의 궁극적 동기를 해명하는 단서도 된다. Iago가 Cassio 때문에 자기를 추하게 느낄 정도라면 Othello에 대한 그의 열등감은 더욱 더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Shakespeare의 모든 극중인물들중에서 가장 고결한 인물 중의 하나이며 Iago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Othello의 고상한 성품과 그 자신의 비열한 성품의 대조는 Iago에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열등감을 암겨주었을 것임에 틀림 없다.

우리들은 이미 Iago의 제1막에서의 Roderigo와의 대화와, 그의 복수 수행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었다. 그는 항상 자기의 지적 우월성을 확신하고 있으며 이 우월감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자존심이야 말로 극속에서 행하는 그의 간악한 행위 전체의 추진력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독백 속에서 Othello와 Cassio를 중요하고 복수를 기도하는 동기로서 여러가지 사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부관 선임에 있어서 자기가 배제된데 대한 원한, Othello가 Emilia와 내통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 그리고 그에게

열등감을 일으키는 Cassio의 미덕이다. 이들 개개의 동기는 각기 다른 기회에 진술되고 있는 까닭에 열핏 보면 서로 별개의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하거나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공통되는 하나의 근원, 즉 그의 자존심과 우월감이 손상될 때 대한 그의 본능적 반발과 분노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radley는 Iago가 지니고 있는, 자존심의 손상에 대한 과민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what is clear is that Iago is keenly sensitive to anything that touches his pride or self-esteem. It would be most unjust to call him vain, but he has a high opinion of himself and a contempt for others. He is quite aware of his superiority to them in certain respects; and he either disbelieves in or despises the qualities in which they are superior to him. Whatever disturbs or wounds his sense of superiority irritates him at once; and in that sense he is highly competitive.³⁵⁾

Iago는 부관 선임에 있어서 자기의 직업적 봉사와 능력이 Othello에 의하여 무시되었다고 생각하며, 또 자기는 선임된 Cassio보다 그 자리에 더 적임자라고 믿는 까닭에 자존심과 우월감이 손상될 수 밖에 없었다. Othello와 Emilia 사이의 부정한 관계에 대한 Iago의 분노도, 아내에 대한 관심에서 나왔다가 보다는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염려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그가 멀시하는 바보에 불과한 Othello에게 도리어 모욕당한 처지가 되고 더욱기 불행한 남편으로 세인의 동정과 조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의 자존심과 우월감이 손상되었다. 그리고 멀시하는 Cassio가 그보다 나은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같은 이유로 Iago의 자존심과 우월감을 손상시킬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보면 Iago가 독백 속에서 거론한 여러개의 동기들은 모두가 그의 성격의 혼자한 하나의 특성과 관계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개개의 동기들이 쉽게 복합되어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그의 분노를 배가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동기 외에 Iago는 그의 생활신조에서 나온 일반적인 동기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Iago는 오직 자기의 이성과 이기심에 따라서만 행동하고 도덕적인 고려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 인간이다. 그는 악을 위한 악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기주의적 인생관에 따라 선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보는

35) Bradley, *op. cit.*, p. 180.

까닭에 그것을 싫어하고 세상의 소위 선인들을 멸시한다. 그런데도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는 그에게 정직한 바보로 밖에 보이지 않는 Othello나 Cassio 같은 인간들이 더 높이 평가받고 더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Iago의 자존심과 우월감은 손상될 수 밖에 없다. 그들보다도 훨씬 영리하다고 자부하는 자기의 가치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그의 현실의 사회적 지위는 그의 인간적 가치와 균형되고 있지 않다. 이런 자의식은 Iago에게 불평 불만과 굴욕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리하여 Iago는 Cassio를 시기하고 Othello와 그의 행복을 증오하고 나아가 그것을 파괴함으로써 자기의 울분을 풀려고 한다. 이러한 그의 심적 상태에 곁들여 그가 Othello와 Cassio에게서 받은 직접적인 모욕이 중첩되므로써 그들에 대한 복수 의욕은 가속화되는 것이다.

Iago는 천성적으로 잔인한 인간은 아니며 그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인간을 괴롭히는데 기쁨을 갖는 것도 아니다.³⁶⁾ 예컨대 그가 Desdemona의 고통을 기뻐하고 있는 흔적은 극 속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녀에게서 Othello의 마음을 완화시켜 그의 애정을 되찾도록 도와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을 때³⁷⁾ Iago가 답하는 말 속에는 당혹한 기색이 엿보이며 그가 그 장면을 빨리 끝내려고 초조해 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³⁸⁾ 또 그는 원래부터 Cassio와 Desdemona의 살해를 계획하거나 예견하고 그의 복수를 추진시켜나간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의 우월감과 자존심을 손상하는 상대에 대하여는 본능적인 적의를 품으며, 그들을 거꾸로 자기의 푸두각시로 만들어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것에 의하여 자기의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과 우월감의 손상을 보상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은 Iago의 복수를 초인간적이고 악마적인 악의의 탓으로 하지 않고도 인간적인 것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의 특이한 성격과 생활태도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Iago가 Othello와 Cassio를 증오하고 그들에게 복수를 기도한 궁극적 동기로서 우리들은 그의 남달리 강한 자존심과 우월감, 그리고 그것을 과시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다.³⁹⁾

36) See *Ibid.* p. 180.

37) See IV.ii. 111-172.

38) See Walter Raleigh, *Shakespeare* (London: Macmillan, 1950), p. 207.

39) See Hardin Craig, ed., *The Complete Works of Shakespeare* (Chicago etc.: Scott, Foresman, 1951) p. 946.

Iago가 신봉하는 생활태도는 의지와 이성에 의하여 감정과 본능을 억제하고 오직 자기의 이기적 목적 만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극 속에 나타나 있는 그의 행동을 보아도 그는 강인한 의지와 냉혹한 이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정열이라고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듯이 보이며, 이것은 그의 성격의 무서운 특성의 일면이다. 물론 인간생활에 있어서 이성에 의한 정열의 지배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말은 이성이 과도한 정열의 독주를 억제한다는 뜻이지 정열을 말살하고 이성만으로 생활을 영위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상적인 인간성은 이성이나 정열의 어느 한쪽 만의 과도한 존재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그 두가지가 적절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공존함으로써 비로소 형성될 수 있다. Iago는 이러한 인간성의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보면 일종의 성격 패탄자이며, 이러한 Iago가 이성과 정열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Othello나 Desdemona의 인간성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Othello와 Desdemona는 그들 사이의 모든 장벽, 인종, 연령, 피부색, 출신등의 상위를 무릅쓰고 오직 순수한 사랑과 상대편의 인간성에 대한 이해에 의하여 결합된 부부이다. 따라서 그들 상호간의 사랑과 신뢰는 확고부동하고 어떤 외부세력에 의해서도 파괴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토록 절대적인 그들의 사랑을 Iago가 자기의 뛰어난 지력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음모를 추진해 나가면서 자기의 일시적인 성공에 도취한 것은 하나의 오산이었다. 그는 Othello로 하여금 Desdemona의 정조를 의심케 함으로써 그 괴로움을 자기도 알고 있는 격렬한 질투에 몰아넣으려고 계획하였으며 그것이 그가 Othello에 대하여 꾸민 원래의 복수 형식이었다. 그는 Othello의 성격적 약점을 예민하게 통찰하고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그의 음모를 용의주도하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Othello를 쉽게 속일 수 있게 되자 자기의 영리함에 매혹되고 자기 만족에 도취하였다. 그러나 그는 남녀간의 사랑을 정욕으로 밖에는 보지 않기 때문에 Othello의 Desdemona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는 자기가 계획한대로 Othello를 격렬한 질투로 몰아 넣었을 때 발생할 결과를 전혀 예기치 못하였다. Othello가 광적인 질투에 사로잡혀 Desdemona를 살해하게 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그의 이해의 한계를 초월하고 있

었다.

Iago는 그의 굳은 의지력과 냉혹한 이성에 의하여 자기의 음모를 명석하고 정확하게 추진시키면서 Othello를 자유자재로 조종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극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 그의 역량과 인식의 한계가 들어나고 그의 지적 우월성은 단번에 분쇄되고 만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실 이외의 일체의 것을 볼 줄 모르는 그의 영리하면서도 우둔한 인간성이 폭로되는 반면, Othello의 어리석으면서도 위대한 인간성이 들어나게 된다. Iago는 인간의 참다운 심리나 감정을 인식할 줄 모르는 까닭에 사랑이나 충성의 존재나 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는 Emilia의 Desdemona에 대한 혼신적 사랑을 전혀 예견치 못하였고, 이것이 그의 정체 폭로와 파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결국 Iago는 그가 기도하였던 Cassio의 실각도, Desdemona의 정숙한 미덕의 손상도, Othello의 고귀한 인간성의 파괴도 모두 성취시킬 수 없다. Cassio는 사령관 대리로 도리어 승진되며, Othello와 Desdemona의 정신적 고귀성은 그들의 죽음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된다. 이에 반하여 Iago는 그가 유린하려던 사랑에 복수 당하여 자신의 아내를 찔러 죽이고 그 자신도 죽음에 이르도록 고문당할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이 극은 주인공들이 흥악한 간계에 넘어가 불가피하게 죽게 된다는 점에서 그들의 비극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죽음에 의하여 그들의 고결한 사랑의 영원한 승리를 성취시킨 반면, Iago가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이성과 이기주의에 입각한 생활신조가 완전히 패배하였다는 점에서⁴⁰⁾ Iago자신의 비극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Iago는 그의 자존심과 우월감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최후까지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Demand me nothing: what you know, you know;
From this time forth I never will speak word. (V.ii. 305-306)

그는 극의 서두에서 자기의 본심을 절대로 외면에 들어내보이지 않는다고 호언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가 아무리 탁월한 지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가 백일하에 들어난 지금 다시 무슨 거짓말을 꾸

40) Ian Kott는 이와 정반대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See *Shakespeare, Our Contemporary*, trans, by Boleslaw Taborski (Garden City: Anchor Books, 1966), p. 110.

며내어 극중인물들을 속일 수 있겠는가? 자존심과 우월감의 화신인 Iago, 강인한 지력과 냉혹한 이성만에 의지하고 살아온 이기주의자 Iago, 그의 말로가 비참한 비극으로 끝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요인을 그의 성격은 지니고 있었다.

